

에이즈 관리에 대한 감염자의 목소리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자들은 주 감염경로가 성관계로 인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단죄받고 사회로부터 차별적리를 요구하는 보수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위로부터 오는 냉대와 차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형철 / 희망나눔터 회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에이즈협회의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감염자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에이즈 관련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HIV 감염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게다가 감염자들을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

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냉대와 차별로 인한 고통

저는 1994년 6월에 감염자 단체인 희망나눔터를 조직하였으며 저와 같이

저는 1994년 6월에 감염자 단체인 희망나눔터를 조직하였습니다.



**희망나눔터에서는 그동안 감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하는 현실을 감수하면서도 감염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줌으로써 감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자연히
없어질 수 있으리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에이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자신과는 무관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에이즈 예방 홍보단체로부터는 "감염자가 무슨 배짱으로 얼굴을 내놓고 무얼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초창기 에이즈에 대한 미국에서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자들은 주 감염경로가 성관계로 인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단죄받고, 사회로부터 차별적리를 요구하는 보수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위로부터 오는 냉대와 차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에이즈라는 질병의 두려움보다는 감염자나 환자들을 무서워하고 증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감염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을 고립시키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포기하도록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감염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희망나눔터에서는 그동안 감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하

는 현실을 감수하면서도 감염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에이즈로부터 지켜줌으로써 감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자연히 없어질 수 있으리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전화상담, 거리홍보, 매매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 매스미디어를 통한 예방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감염자들이 서로 만나 오랫동안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방황하는 감염자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마음에 안정을 찾아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되어 음지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감염자들이 양지로 나와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감염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또한 에이즈 감염자로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인 300명에게서 조사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에이즈는 자신과는 무관한 질병, 걸리면 죽는 병, 동성연애자나 특수한 사람들만이 걸리는 병, 환자와 감염자의 차이를 모름, 일상생활에서도 감염됨.

2. 윤락종사자 100명에게서 조사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

외국인과의 성접촉시 조심하면 된다. 콘돔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감염자들을 외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에이즈에 대한 감염자의 의식(조사대상 54명)

(남자 48명, 여자 6명, 이성감염 38명, 동성감염 16명, A:이성, B:동성)

가. 충격시기:에이즈 감염 통보후 1~3개월 가량

A:정신이 혼란하며 멍한 상태에서 현실상황을 부정도 긍정도 아닌 심리적인 갈등상태

B:외부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고립상태(방안에 있다. 은둔생활)

나. 방황시기:에이즈 감염 통보후 1~10개월 가량(가장 위험한 시기)

A:자신의 죽음에 대한 시한부 인정과 죽음을 위한 정리. 모든 돈을 무작정 낭비(술, 여행).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에게 대한 분노.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출(화를 자주냄). 마지막을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화 하

려고 함. 방향에 지쳐서 다시 삶을 인정. 그 후 경제적 곤란.

B: 자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서의 감염 인정과 죽음을 위한 준비, 정리. 게이바 등을 다니며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 자신의 현파트너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의논. 동성 파트너헌팅과 게이바에 자주 접근. 약품을 구입하거나 주위사람들과 관계차단. 유언서 작성.

다. 긍정적 자포자기

A: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자(직업을 찾아 나섬). 자신의 감염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에이즈 정보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감염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라. 현실 인정(1년에서 2년결림)

A: 직업을 찾아나섬(도움청함). 자신의 신분노출에 민감한 반응. 주위에서 결혼, 중매 등에 의한 갈등(이성문제). 직장동료, 친구와의 술좌석 및 여흥 분위기에서의 갈등. 치료제 등 약품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마. 감염자의 심정: 대화를 할 대상이 없다. 관리를 받고 싶지 않다. 이성 문제로 고민.

4. 보건소에 대한 감염자의 의식

보건소 담당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건소에 의한 감염자의 신분노출. 감염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 상담시 형식적으로 대한다. 혈청검사일이 가까워지면 지나치게 친절하다(유혹, 직장 등). 정기적 상담기일이 지날시 외부노출. AZT와 같은 약품에 대한 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못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보건소 담당자들을 피하고 담당자들은 감염자들을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를 찾다니며 도움을 청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는다. 홍보부족에 의한 무지로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부 불신.

5. 감염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식(조사대상 54명)
(남자 48명, 여자 6명, 이성감염 38명, 동성감염 16명)

가. HIV 감염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가?

구분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		친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이성	6	15.8	7	18.4	11	28.9	14	36.8	2	5.3	19	50.0
동성	1	6.3	9	56.3	8	50.0	3	18.8	1	6.3	12	75.0
합계	7	13.0	16	29.6	19	35.2	17	31.4	3	5.5	31	57.4

나. HIV 감염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후의 반응

구분	냉대		노력		전과 같음	
	명	%	명	%	명	%
이성	6	15.8	14	36.8	13	34.2
동성	3	18.8	8	50.0	9	56.3
합계	9	16.7	22	40.7	21	38.9

다. 가족들의 냉대 이유

구분	에이즈에 대한 인식부족		다른 가족의 전염위험		부도덕한 행위의 결과		외부인에게 노출의 두려움	
	명	%	명	%	명	%	명	%
이성	12	31.6	25	65.8	18	47.4	38	100.0
동성	6	37.5	14	87.5	16	100.0	16	100.0
합계	18	33.3	39	72.2	34	63.0	54	100.0

희망나눔터의 바람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염자 가족들조차도 기피를 하는 현식은 감염자로 하여금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목을 조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감염자들은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보건소 담당자들을 피하고 담당자들은 감염자들을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감



자유 발언 중인 보건소 AIDS 담당자

염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무지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감염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발표

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 스스로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부주의로 만약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의 부주의로 감염된 것이므로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



세미나 이후 스낵파티에서

